

‘비요일’ KIA, 잔여경기가 더 문제다

양궁 단체전 金 ‘비상’

점수 합산→세트 승점제 규칙 변경

고득점에 강한 한국 궁사들에 악재

아시아게임을 목전에 두고 양궁 경기규칙이 바뀌어 궁사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양궁 남녀 리커브 단체전에서 점수 합산제 대신 세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단체전 점수 합산제에서는 궁사 3명의 화살 점수(4엔드 24발 만점 240)를 모두 더해 우열을 가린다.

세트제는 화살 점수의 합산이 아닌 세트승점을 따져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승리에 2점, 무승부에 1점, 패배에 0점을 주는 방식으로 최장 4세트까지 치러지고 3세트까지 5-1, 6-0이 되면 경기가 그대로 끝난다.

안정적으로 고득점하는 한국과 같은 강호에 단체전 세트제는 이로울 점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은 점수합산에서 세계기록에 육박하는 고득점을 쓰고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세트제로 규칙이 변경되면 득점에 기록이 심한 약체가 반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 점수 합산제에서는 7점 이하의 실수발은 곧 패배를 의미했으나 세트제에서는 실수가 해당 세트에 국한된다.

최근 세계양궁연맹(WA) 월드컵에서는 점수 누적에서 우위이지만 승점에서 밀려 고배를 드는 강호들이 종종 목격됐다. 북한과 같은 약체가 순간적인 집중력을 앞세워 치명적 실수를 뒀고 토너먼트 상위권으로 치고 나서는 사례도 나왔다.

세계양궁연맹(WA)은 작년 11월 총회에서 단체전에 올해 4월부터 세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가능성을 높여 기대를 부풀리고 경기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도록 해 박진감을 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아시안게임의 경기 규칙은 그전에 이미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승인을 받았다.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는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WA의 강력한 요구를 결국 수용했다.

한국 국가대표 궁사들은 올해 4월부터 국내, 국제대회에서 이미 단체전을 세트제로 치러왔다. 새 규칙이 낯설지는 않지만 갑작스러운 변수를 통제할 별도의 훈련 프로그램은 사립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양현종

어제 두산전 또 우천 취소
선수들 컨디션 조절 어려워
AG 이후 남은 일정 뻑뻑



하늘이 야속하다. 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와 두산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다. 2일에 이어 이를 연속 경기가 비에

열리지 못했다.

만반의 준비를 했던 양현종의 등판도 연기됐다.

양현종의 꾸준한 기세가 자꾸 비에 꺾이면서 아쉬움이 남는다.

KIA는 2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자 토마스 대신 양현종으로 3일 선발을 변경했다. 양현종이 최상의 컨디션을 보인다면 아시안게임 휴식기에 앞서 세 차례 양현종을 투입하기 위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비때문에 경기가 취소되면서 주말 NC 이후 한 차례 더 등판한 뒤 아시안게임 출전을 준비하게 됐다.

등판 횟수보다 아쉬운 것은 꾸준하지 못한 로테이션이다. 8월 19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우천으로 등판이 밀렸던 양현종은 20일에는 경기 시작 직전에 뒤늦게 우천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몸만 풀고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결국 23일 한화전으로 등판 날짜를 미뤘지만 5이닝 4실점으로 만족스러지 못한 성적을 기록했다. 4.1이닝 8실점의 최악의 성적표를 냈던 8월5일 두산전도 비때문에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경우다.

지난 8월29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6이닝 3피안타 1볼넷 5탈삼진 1실점(1자책)을 기록하며 시즌 14승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1회에는 밸런스를 잡느라 고전했다.

롯데와의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양현종은 “그동안 비때문에 등판 로테이션이 꼬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었다. 앞으로 컨디션 조절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언급했었다.

롯데전에서 직구의 위력을 뽐내며 감을 잡은 모습이었기에 이번 우천취소는 더욱 아쉽다. 4·5일 휴식기까지 보내야하기 때문에 주말 등판 준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우천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 광주에는 비가 푹 그쳤다. 갈 길 바쁜 두 팀의 경기였기에 아쉬움이 쌓인 하루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인천 장애인 AG

北, 첫 선수단 파견

북한이 사상 최초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한다.

북한은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에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와 선수명단을 지난 2일 통보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APC는 이를 다시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통보했다.

북한은 남자 탁구 마유철·리철성·전주현, 여자 탁구 송금정, 남자 수영 심승혁·정국성·김철웅, 남자 양궁 리철성, 남자 육상 고정영 등 대표선수 9명의 명단을 APC에 보냈다.

리분희 조선장애인체육협회 서기장도 선수단을 이끌고 인천 땅을 밟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현정화 현 대한탁구협회 전무와 남북 단일팀을 이뤄 세계 정상에 올랐던 만큼 현 전무와 재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다음 달 개막하는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예정대로 선수단을 파견한다면 이번 대회는 북한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출전한다는 의미를 더하게 된다.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 2주 뒤인 10월 18일 시작돼 24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국민이 감독...신뢰 회복 하겠다”

축구대표팀, 내일 베네수엘라·8일 우루과이와 평가전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9월 평가 2연전을 앞둔 태극전사들에게 내려진 특명이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5일 베네수엘라(부천종합운동장), 8일 우루과이(고양종합운동장)와 대결한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을 꿈꾸던 한국 축구는 1무 2패로 탈락의 쓴잔을 마셔야했다. 준비 과정에서 나온 ‘의리 논란’과 탈락 이후 터진 ‘회식 파동’ 등은 팬들로 하여금 대표팀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번 평가전은 브라질월드컵 이후 치러지는 첫 평가전이다. 2일 첫 훈련을 시작한 태극전사들은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상대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다. 우루과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 베네수엘라는 29위로 57위인 한국보다 훨씬 높다.

특히 우루과이는 에딘손 카바니(파리생제르맹), 디에고 고딘, 크리스티안 로드리게스(이탈리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브라질월드컵에 나섰던 정예 멤버를 가동한다.

공교롭게도 일본과 ‘크로스매치’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본은 반대로 5일

베네수엘라 평가전 예상 베스트 11



우루과이, 8일 베네수엘라와 맞붙는다.

이번 평가전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의 선임 감독 선임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령탑 없이 치러진다. 평가전은 팬들을 위한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국제대회를 앞두고 감독 앞에서 선수들이 저마디의 기량을 뽐내는 자리다.

하지만 침체된 한국 축구를 되살려야 하는 중책을 맡은 태극전사들의 마음가짐은 그 어느

때보다 굳다.

미드필더 박종우(광저우 부리)는 “감독은 없지만 집중해서 국민 여러분께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만큼은 ‘국민이 곧 감독’이라는 얘기다. 사실상 임시 사령탑 역할을 할 신태용 코치의 대략적인 선발진 구상은 첫 훈련에서 일찌감치 드러났다. 주전급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선수들이 모두 ‘노란 조끼’를 입었다.

최전방 공격수는 ‘센추리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둔 이종국(전북 현대)이 말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까지 A매치 99경기에 출전했다.

어느덧 한국 축구의 최고 베테랑이 된 그는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 축구의 ‘구원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좌우 측면 공격수로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연일 골 폭풍을 휘몰아치는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창용(볼턴)이 나선다. 이근호(상주 상무)는 처진 공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 미드필더는 기성용(스완지시티), 이명주(알아인)가 말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민우(시간 도스)와 차두리(FC서울)가 좌우 풀백을, 김영권(광저우 헝다)이 센터백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수비수 남은 한 자리는 경험을 앞세운 권대휘(알힐랄)가 말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내 도전은 진행형”

윤석민, 시즌 끝내고 귀국

윤석민(볼티모어)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미국 프로야구 트리플 A 노포크 타이즈(볼티모어 산하)에서 2014시즌을 보낸 윤석민이 3일 오후 인천공항을 귀국했다. 9월1일 엔트리 확대에 따른 박리고 진출을 기대했었던 윤석민은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자 노포크 일정이 끝나는 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윤석민은 앞서 40인 로스터 제외를 놓고 방출 얘기가 나오면서 흥행을 치르기도 했다.

윤석민은 “가을을 기다렸는데 부족한 게 많았다. 미국에서의 첫 시즌을 실패라고 하면 실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배운 것도 있고 희망도 보았다. 아쉬움은 많이 남지만 이번 겨울 잘 준비해서 빅리거라는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방출 논란 속에 국내 복귀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석민은 “나는 볼티모어 선수다. 아직 내 도전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시즌에 대한 고민만 하고 준비를 할 생각이다. 한국에서도 계속 운동은 할 계획이다. 타국 생활을 하며 힘든 것도 있었는데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